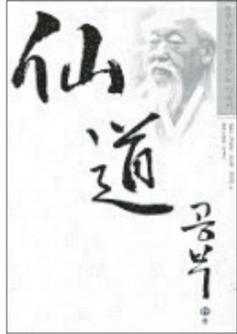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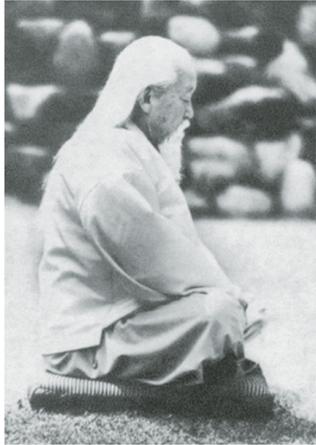


權氏列傳 봉우 권태훈 (鳳宇 權太勳, 추밀공파 33세) 제4편

“나의 문제는 나에게서 찾아라!

백두대운의 문명개벽에, 丹學을 신, 경, 성을 다해 수련하자!”



은 자신의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형이상학은 하늘이요. 형이하학은 땅이다. 인간은 이를 다 구비하고 있다. 자신도 다 못 다스리면서 남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라. 천 가지, 만 가지 말과 글이 모두 다 먼저 行함보다 못한 것이다. 나에게서 나를 구하라. 나 밖에 내가 없다.

2. 나를 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知彼 知己百戰不殆

내가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다. 남을 알고 나를 알면 만사에 무리가 없다. 비록 자기가 자기를 알더라도 용서없이 바른 평가를 내려야 한다. 무슨 일을 할 때나 남을 아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자기를 아는 것이 쉬우지 모르나 전체적으로 자

신의 위치와 본질을 알기는 어렵다. 지난 일을 보면 남을 알기를 잘하는 사람도 자기를 알지 못해서 일에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

3. 백두산족은 누구인가? 弘益人間 濟世理化

자신의 정체성은 민족의 정통성에서 찾아야한다. 코리아는 바로 백두산족이며, 그 시조 단군이 바로 여기서 교화의 터를 잡은 곳이다. 백두산은 우리 모두가 나아가 갈 정신적 이정표를 제시해 주는 영산으로서 우뚝 서 있다. 백두산의 회복은 잃어버린 우리 민족주체의 회복이요, 민족사와 문화의 원복이며 통일된 민족국가로의 광복이니 우리 민족이 대륙에서 당당할 때 강성한 겨레의 성산으로서 받아들여 졌다는 것이다.

4. 황백전환기와 정신문명이 도래 한다. 物神轉換 白山大運

“백산대운”이 열릴 시기를 말한다. 백인들의 서구 물질문명이 가고 황인들의 동양 정신문명이 우리 민족을 중심으로 열린다는 것이다. 이 시기에는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의 대립이 없어지고 조화되어 지상천국,극락세계,장춘세계,태평건곤의 창설이 이루어지니, 이는 우리 백두산족이 먼저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지는 홍익인간의 이념을 기반으로 삼는 大同策

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을 하나하나 성취해나갈 때 만이 가능하다.

5. 단학수련의 시대적 요청 丹學修練 民族統一

단학의 기원은 백두산족의 성조, 단군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바, 인간생명의 근원인 숨을 조절하여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더 나아가 본래 지니고 있던 정신의 밝음을 되찾아 일을 바탕으로 자기 주위의 세상을 이롭게 함에 힘쓰는 것을 최상의 목표로 하고 있다.

홍익인간 이념의 실현과 민족통일의 대업을 위해 민족 구성원 모두에게 민족정신의 단결을 튼튼히 해 줄 단학수련의 문호를 활짝 열어야 한다.

6. 믿음(信), 공경(敬), 정성(誠)을 다하자! 信恭敬盡 大人造命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려면 믿음 속에,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며, 또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세가지 조건이 확보되면 성공 못하는 법이 없고, 뚝이 아무리 없는 사람이라도 이 세 조건이 확보 되면 틀림없는 행운이 온다.

大人은 造命이라고 운명론을 반대한다. 누구든 무슨 일을 하든지 확신을 가지고 경의를 다하여 성심껏 하면 성공한다는 확정론을 말하는 것이다.

<글. 권오철>

봉우사상의 맥을 다 일수는 없지만 그가 남긴 어록을 통하여 간단하나마 그 진면목의 일부를 엿볼 수가 있다. 그의 수련법등은 서적을 통하여 많이 소개되어 있어 생략하고, 먼저 열일곱개의 말씀을 간단히 축약하여 몇 번에 걸쳐서 요점만 전해 드리고자한다.

1. 나에게서 구하라! 勿勿然然 久久不休

모든 가르침은 스스로 구하지 않으면 무의한 것이고 좋은 스승이란 훌륭한 길 안내자에 불과하고 목적지에 이르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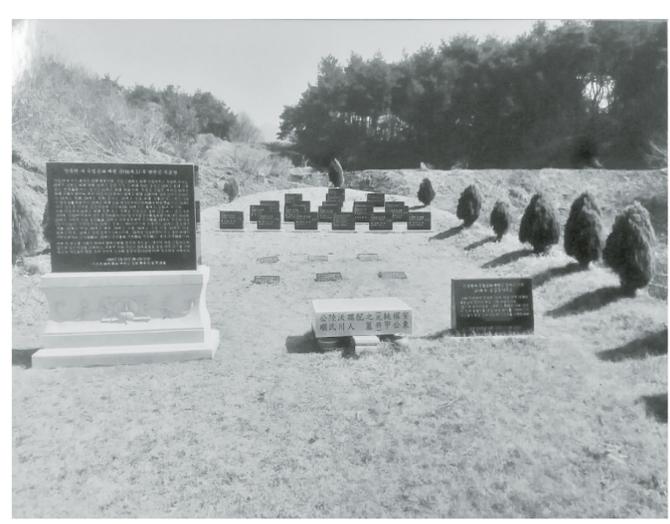
추밀공파 매헌공 춘향제 봉행

매헌공 종회는 4월 13일 11시 종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두삼 호당공(매헌공 차자) 종회 회장의 주관으로 양호재(洋乎齋)에서 일제 선생 등 17세-26세 10위의 열선조를 위한 제례를 우천으로 봉헌제 재실에서 봉행했다.

다음날 4월 14일 10시 30분에는 매헌공 부자의 춘향제를 봉행했다. 매헌공 초헌관에는 권혁찬, 아헌관에는 권혁주, 종헌관에는 권오돈으로 분정하였다. 판윤공 초헌관에는 권동

현, 아헌관에는 권순구, 종헌관에는 권기혁이 각각 담당하였다. 향사를 마친 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정기총회에서는 결산보고, 금년도 예산안 통과, 신임 회장 선출을 하였다. 신임회장은 권형선(매헌공 3자인 참판공 손)가 선출되었다. 신임회장은 인사말에서 “젊은 소생이 회장에 선임되어 어제가 무겁다. 종회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추밀공파 매헌공 판윤공계 장수 입학 열조 추모단 조성



판윤공 종회 (회장 권용주·사진)에서는 3월 20일부터 3월 23일까지 전북 장수군 산서면 오산리(772) 오메마을에서 참제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2세조부터 37세조까지 26위의 열선조의 추모단을 봉축하여 봉안하였다. 24일 일요일 10시 30분 초헌관에는 권용길, 아헌관에는 권용문, 종헌관에는 권동준으로 분정하여 추모 제례를 봉행하였다.

전북 장수 입학조는 20세 휘 수壽이고 시호는 양호당(養浩堂)이다. 20세 휘 수와 21세 휘 승崧의 추모단은 장수군 산서면 오성리 동등마을(산31번지)에 마련되어 있다.

■기고 - 권 영 수 (드림안경 다초점크리닉 대표)

마음에도 눈이 있다

고객을 대하다 보면 이런 고객, 저런 고객 참으로 다양하다. 모든 분들에게 만족과 기쁨을 드리고 환한 얼굴을 보며 그럴 때 책임과 함께 안경사의 보람도 느낀다.

그러나 업무 중 그렇지 못 할 때가 한 번씩 있다. 때로는 고객과 오해로 언쟁을 할 때도 있고 마음 편치 않을 때 잊기도 하며 이해 못시나 자신이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

30여년 전 국내 최고의 정상급 안경원에 수석 안경사로 근무 할 때의 일이다. 그 때만 해도 먹고 살기가 힘들고 의료 보험이 없어서 병원에 자주 가지 못하던 때였다.

하루는 연세가 8순쯤 되어 보이는 연

로하신 어른이 나를 찾아오셨다. 거동도 자연스럽지 못하고 정말 세상의 고난은 모두 지고 살아오신 분 같았다.

검사를 하기 전에 문진을 하며 눈 상태를 보니 안경으로 쉽게 교정이 되지 않을 것 같았다.

역시 예상대로 아무리 이것저것 검사를 해도 쉽게 처방이 안 나오는 것이었다.

모든 시력 측정 방법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백내장 후기로 의심됐죠. 사람의 눈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안

구는 모두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안구의 기능 자체가 혼탁하면 안경만 가지고는 도저히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안경사라면 어느 정도 교정의 효과가 있어야 안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 아닌가. 이 방법 저 방법 모든 방법을 써 봐도 하사였다.

“할아버지 안경으로 어떻게 안 되겠어요. 안과병원에 가서서 진료부터 받고 안경을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제게 기대했던 것이 모두 절망 이니 어르신에 아쉬움이 가득한 눈빛에 나는 울고 싶었다. 그 당시만 해도 의료보험이 일반화 되지 않아 병원에 간다는 것 자체가 사치스러운 일이었으니 정말 답답한 시절의 이야기다.

대한민국 최고의 안경업소 에서 안경을 잘한다고 찾아 왔는데... 상당히 실망하신 모습을 보이시는데 참으로 난감했다.

일단 “차 한 잔 하시라”며 자리에 앉

으시라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였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감하지요 억만금을 준다 해도 안경을 만들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교정은 무시하더라도 조금 편안한 도수를 찾아보기로 하였다.

시력표가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나 난의 노하우로 검사를 했다. 시력은 평소 멀리 보는 시력이 잘 보여야 가까이도 잘 보인다.

교정은 개선되지 않더라도 조금 편한 어느 도수를 결정하여 안경을 해드렸더니 “어 허 - 이제 괜찮구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보이지도 않는 안경을 쓰시고 만족해하던 그 어르신...

지금은 아마 저 하늘나라에 계시겠지만 하늘나라 에서도 안경을 착용 하시며 “어 허 - 이제는 괜찮어!” 하는 할아버지 만족스러워 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마음에도 눈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때 알았다.

정읍종친회 태사묘 시조묘소 참배

전북 정읍종친회(회장 권재원) 회원 30여명은 지난 4월 20일 7시30분 정읍을 출발하여 11시경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388 능동재사에 도착하여 대종회 안동사무소 권오의 부총장의 안내를 받으면서 준비해 온 주과 포로 시조 태사공 묘소와 남중공 단소를 참배 후 능동재사를 둘러보고 관리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시내 북문동에 소재한 삼태사묘에 도착 삼태사의 위패가 봉안된 묘우에 성배하고 해설사로 부터 고려 개국공신 삼태사의 업적과 태사묘의 유래를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보물각을 관람한 후 태사묘 인근 제주봉에서 안동의 별미 안동한우버섯전골을 들면서 시조 태사공의 공덕을 기리면서 담소를 나누었다.

식사를 마친 일행은 다음 행선지인 충남 금산의 이치대참기념관을 향해 오후 3시경 발길을 서둘렀다. <안동사무소 사무부총장 권오의>

합천군종친회 제50차 정기총회 개최

합천군종친회(회장 권석호·사진)는 5월 17일 11시 이화예식장 4층에서 제50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권석호 회장은 많은 종친들이 참석하셔서 종친 간 화합의 정을 나누는 소중한 만남의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종친회 임원 및 청·장년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고문: 권병석, 권종현, 권영욱, 권병근, 권동술, 권오실, 권대형 △종친회장: 권석호 △부회장: 권영록, 권구울, 권석근, 권정태 △감사: 권창호, 권해승 △사무국장: 권홍근 △합천 청·장년회장: 권영욱 △합천 청·장년회 사무국장: 권덕현

서울마포종친회 월례회

회원여러분의 가정에 화목·건강·행운이 함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마포종친회 월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9년 5월 23일(목) 오후 7시
- ◆장 소 : 우가촌(가마솔설령탕) 02-702-5047, 010-5358-2840
- ◆오시는길 : 지하철5호선 공덕역5번 출구·지하철6호선 공덕역6번 출구
- ◆연 락 처 : 회장 권승구 02-718-8437, 010-6271-8437 총무 권경택 010-3796-4047

2019년 5월 1일

안동권씨 마포종친회 회장 권승구

서울산악회 정구산행 안내 (제295차)

- ◆일 시 : 2019년 5월 19일 오전 9시 30분(매월 3째 일요일)
- ◆등 산 지 : 호룡곡산(해발244m)
- ◆집결장소 : 인천공항 1터미널 역 ※서울역 시간표 엄수바랍니다(58분소요).
- ◆준 비 물 : 물컵, 식수, 산행필수장비, 도시락, 주류, 음료, 간식은 개인별 준비

회 장(권종훈): 010-4037-6656 등반대장(권오준): 010-3718-4204
사무국장(권오준): 010-3261-2570

2019년 5월 1일

안동권씨서울산악회 회장 권종훈